


끊임없이 성장하는 프론트엔드개발자 이은솔 입니다.



이은솔

휴대폰

주소

Email | dmsthf9596@gmail.com

학력	경력	인턴·대외활동 / 해외경험	자격증 / 어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23년) 졸업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퇴사 총 6년 7개월	-	웹디자인기능사 외 3

Bootstrap

CSS

HTML

Javascript

Jquery

MongoDB

Node.js

React

Redux

성실성

성취지향성

협동심

학력

2013. 03 ~ 2015. 02 졸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외식조리제빵전공
2013 졸업	유성생명학교등학교	전문(실업)계열

경력 총 6년 7개월

2014. 12 ~ 2021. 06 6년 7개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BOH 매니저
	직원 인원관리, 발주 시스템 관리, 조리업무	
	연봉	3,600만원
	주요직무	양식,조리사

교육

2022. 12 ~ 2023. 06	프론트엔드개발자 양성과정	그린아카데미
	산대특리엑트(React), 리엑트네이티브 EXPO 활용 프론트엔드개발자 양성과정	
	HTML, CSS, JS, React, React-native 등 프레임워크 활용	

자격증

2023. 04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07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02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11. 06	양식조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기소개서

책임감이 너무도 당연했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부모님의 결별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보살피며 성장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웠던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배우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는 결이 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게 보인다는 생각에 요리를 배우게 되었었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요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때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교 또한 조리 전공으로 진학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취업해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BOH 매니저라는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 발령 당시 나이는 26세로 근무한 지역에서 가장 어린 매니저였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집요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결과물로 남길 수 있는 일을 하고파

무엇인가 남기는 일상을 살았는지 뒤돌아봤을 때 뿌듯한 하루가 있습니다. 아웃백에서 근무 시 오프닝 트레이너팀으로 지원하여 신규매장을 오픈했을 때도 저를 믿고 함께한 직원의 동료 매니저로 성장하였을 때도 저의 소속 매장의 평가지표가 높을 때도 기억에 남는 일상의 연속이었고 뿌듯한 기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제가 스스로 즐거워서 근무한 모습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저 스스로는 알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어 보일 수 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반복되는 삶에서 또 다른 자극제를 찾던 중 비전공으로 시작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인 나도 해낼 수 있는 일이라니 그리고 타인이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남는다니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껏 이뤄온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도전할지, 안전한 길로 이어갈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은 첫 직장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디자인 툴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를 공부했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내 기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의 카페에 운영진을 지원하여 배너광고 디자인이나 굿즈에 인쇄될 디자인 작업을 해보며 툴의 기능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경험으로 컴퓨터 그래픽 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의 경험을 바탕으로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고 HTML/CSS 기초와 jQuery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에디터로 코드를 작성하면 브라우저에 바로 출력되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런 게 프로그래밍이라면 아주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엔 포기하고 싶은 벽처럼 느껴진 적도 많았고, 이해되지 않은 Javascript 코드를 보며 내 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했기에 되돌아갈 수 없고 시작한 이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공자인 다른 아들도 해낸 일이기에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으나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 단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퍼블리싱을 수행할 때 꼼꼼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서리의 둥근 처리 등 세부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구현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시안이나 스타일 가이드 등 제시된 자료를 정독하며 코드로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의 시간 관리와 작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 진행 시 정해진 기한 보다 1일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남은 1일간은 제가 작업 시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꼼꼼하지 못한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팀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주었고, 현재는 정해진 기한 내에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함께 근무하고 싶은 사람`

저는 아웃백 근무 당시에는 많은 동료로부터 "같이 근무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가끔은 직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의사소통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전에,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 의견을 맞추고 마찰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 의견 마찰이 있었던 동료들은 현재까지도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또한, 제가 맡은 업무의 기한을 절대로 넘긴 적이 없습니다. 업무에 할당된 기한을 지키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더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아웃백 근무 당시에는 '함께 근무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함께 근무하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기한을 지키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처음 컴퓨터그래픽 기능사나 웹 디자인 기능사를 독학으로 취득했을 때 성취감이 컸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은 알아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 보였고 어떤 체계인지도 막연했기에 직업훈련 교육기관인 그린컴퓨터아카데미에서 상담받고 [«산대특»리액트(React), 리액트네이티브 EXPO 활용 프론트엔드 양성 과정] 수업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정적 레이아웃 구현이나 브라우저의 DOM을 조작하는 정도의 Javascript만 알고 있다가 nodejs, react, react native 등 학습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크고 높은 벽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통해 훈련하면서 데이터 바인딩 처리나 프로그래밍을 통한 데이터 처리에 더 흥미있어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상이지만 실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며 기획부터 구현까지 완성한 6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기꺼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은 종료되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Javascript와 typescript를 지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React와 Nextjs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threejs를 독학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발전해나가는 산업의 배움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 또한 꾸준한 공부를 통해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꾸준한 역량을 쌓아 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마주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태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짓도 허용치 않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반복된 실수는 집중력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늘 공부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얻은 결론은 공부는 끝이 없고, 멈추지 않는 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료도 행복해야 함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로부터 함께 일해서 힘이 나고 즐겁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와 귀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기타	https://github.com/EUNSOLY	포트폴리오	https://eunsoly.github.io/portfolio/
----	---	-------	---

희망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희망근무지	대전전지역, 세종전지역, 서울전지역
희망연봉	3,200만원 이상
지원분야	직무 프론트엔드개발자 웹퍼블리셔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은솔
이 이력서는 2023년 08월 11일 (금)에 최종 수정된 이력서 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등록하여 취업활동에 이용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유)는 구직자가 등록 한 문서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첨부된 문서를 신뢰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이력서 삭제 혹은 비공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